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9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



Not for sale
09
9 772733 596006
ISSN 2733-5968

KHIS 국토인문정보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

김태환, 김은란, 신휴석, 박미래, 이혜진

제9호
2021년 12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Contents

02 요약 및 시사점

Ⅰ

03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03 한국의 GDP와 1인당 GDP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 기록

05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

06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

08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Ⅱ

10 OECD 국가의 지역간 소득 및 고용 격차

10 한국의 국내총생산 지역간 격차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

11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13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14 한국의 고용률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16 한국의 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18 한국의 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Ⅲ

19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

19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

20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과 연령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최상위

21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22 코로나19의 위기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23 한국의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24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지역간 성별 격차는 비교적 높은 수준

26 한국의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27 부록



요약

▣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 **(한국의 GDP와 총가계가처분소득의 성장)** 2000년-2020년 한국의 GDP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1인당 GDP 증가율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동 기간 한국의 총가계가처분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함
-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실업률 유지)** 2000년-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2년 한국의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국가의 지역간 소득 및 고용 격차

- **(한국의 지역간 총생산 격차는 큰 편이나 1인당 소득 격차는 낮은 수준)** 한국의 지역간 GDP 격차는 OECD 21개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GDP와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지역간 고용 격차는 낮은 수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는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

- **(노령인구의 빈곤문제)** 2018년 한국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OECD 36개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함. 코로나19의 위협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역간 격차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성별 고용 격차와 불평등)** OECD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2000년-2020년 한국의 GDP 및 GDP 증가율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나 지역 간 격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
- 2000년-2020년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5년-2018년 기간 국가 수준의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또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노령 인구의 높은 빈곤율과 해당 연령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영국은 2018년 고독부(Ministry of Loneliness) 신설)
-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Ⅰ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한국의 GDP와 1인당 GDP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 기록

(국내총생산)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구매력평가(PPP)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2.1조 달러로 OECD 27개국 중 8위를 기록

OECD 국가별 GDP

- 2000년 한국의 GDP는 1.1조 달러로, OECD 27개국 중 10위였으나 지난 20년간 여타 OECD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OECD 27개국 중 8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을 유지함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GDP 성장 (PPP 기준) 단위: 조 달러(USD)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GDP	국가	GDP	국가	GDP
1	미국	13.8	미국	16.4	미국	19.2
2	일본	4.7	일본	4.9	일본	5.1
3	독일	3.3	독일	3.6	독일	4.0
4	프랑스	2.3	프랑스	2.6	영국	2.7
5	이탈리아	2.2	영국	2.5	프랑스	2.7
6	영국	2.2	이탈리아	2.3	터키	2.4
7	멕시코	1.7	멕시코	1.9	멕시코	2.2
8	스페인	1.3	대한민국	1.7	대한민국	2.1
9	캐나다	1.2	스페인	1.6	이탈리아	2.1
10	대한민국	1.1	터키	1.4	캐나다	1.6
11	터키	1.0	캐나다	1.4	스페인	1.6
12	오스트레일리아	0.7	오스트레일리아	1.0	오스트레일리아	1.2
13	네덜란드	0.7	폴란드	0.9	폴란드	1.2
14	폴란드	0.6	네덜란드	0.8	네덜란드	0.9
15	스위스	0.4	스위스	0.5	스위스	0.6
16	벨기에	0.4	벨기에	0.5	벨기에	0.5
17	오스트리아	0.4	스웨덴	0.4	스웨덴	0.5
18	스웨덴	0.3	오스트리아	0.4	오스트리아	0.4
19	그리스	0.3	그리스	0.4	칠레	0.4
20	포르투갈	0.3	칠레	0.3	체코	0.4
21	노르웨이	0.2	체코	0.3	노르웨이	0.3
22	덴마크	0.2	포르투갈	0.3	포르투갈	0.3
23	체코	0.2	노르웨이	0.3	덴마크	0.3
24	칠레	0.2	덴마크	0.3	헝가리	0.3
25	핀란드	0.2	헝가리	0.2	그리스	0.3
26	헝가리	0.2	핀란드	0.2	핀란드	0.2
27	뉴질랜드	0.1	뉴질랜드	0.1	뉴질랜드	0.2

* (주) 1.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고정가격(2015년 기준)으로 표시한 다음 각 국가의 GDP를 공통 통화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변환한 데이터임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OECD Stat:National Account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로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됨.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PPP 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음
(출처: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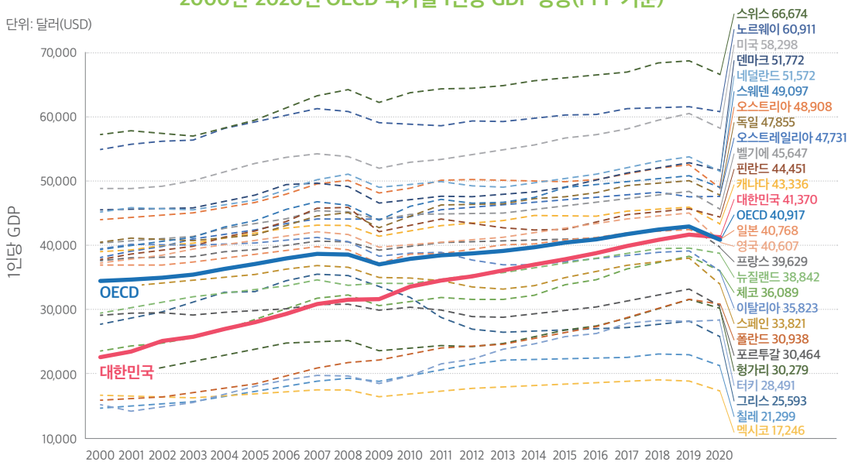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1인당 GDP)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2000년 22,416달러로 OECD 27개국 중 22위였으나 OECD평균 대비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41,370달러로 13위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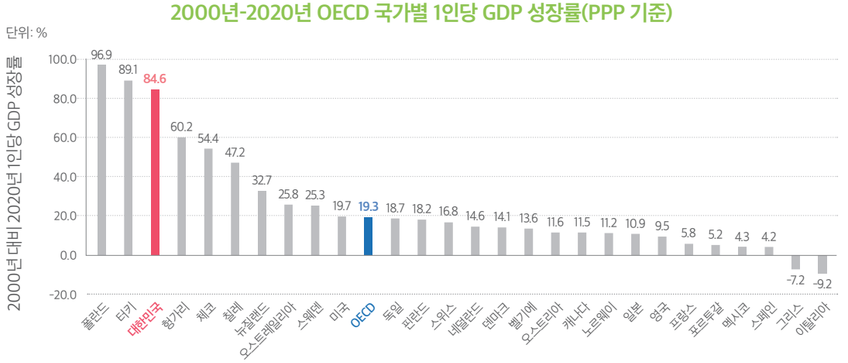
OECD 국가별 1인당 GDP

-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27개국 중 22위에서 13위로 9단계 상승함
- 2000년 대비 2020년 1인당 GDP 증가율이 OECD 평균 19.3%인 것에 비해 한국은 87.6%로 높게 나타났으며, 폴란드와 터키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함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1인당 GDP 성장(PPP 기준)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1인당 GDP 성장률(PPP 기준)



* (주) 1.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고정가격(2015년 기준)으로 표시한 다음 각 국가의 GDP를 공통 통화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변환한 데이터임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National Account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

(1인당 총가계가처분 소득) 2000년-202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2000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하여 OECD 27개국 중 19위를 기록

OECD 국가별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 2000년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12,496달러로, OECD 27개국 중 21위였으나 지난 20년간 4.18%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28,339달러를 나타내며 두 계단 상승하여 19위를 기록함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과 연평균 성장률(PPP 기준)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USD)	국가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USD)	국가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USD)	연평균 성장률
1	룩셈부르크	29558.02	룩셈부르크	37898.50	룩셈부르크	49860.71	2.65%
2	스위스	25474.68	스위스	35157.67	스위스	43035.20	2.66%
3	오스트리아	22904.44	호주	32606.11	호주	42547.51	3.43%
4	독일	22435.25	노르웨이	31280.83	독일	42433.08	3.24%
5	네덜란드	22255.52	오스트리아	31169.11	노르웨이	40742.71	3.52%
6	호주	21672.72	독일	30696.26	오스트리아	38726.01	2.66%
7	벨기에	21608.19	네덜란드	29932.72	네덜란드	38554.70	2.79%
8	이탈리아	21227.31	프랑스	29161.00	벨기에	37924.72	2.85%
9	프랑스	21225.69	벨기에	28772.73	프랑스	37335.64	2.86%
10	영국	20496.88	캐나다	28472.10	캐나다	37202.53	3.08%
11	노르웨이	20392.13	영국	28129.00	덴마크	35849.18	3.60%
12	캐나다	20296.17	스웨덴	27795.67	핀란드	35536.27	3.69%
13	스웨덴	18579.24	핀란드	27623.09	영국	35349.84	2.76%
14	덴마크	17655.05	이탈리아	27564.19	스웨덴	35090.67	3.23%
15	아일랜드	17538.61	덴마크	27059.42	이탈리아	31765.74	2.04%
16	핀란드	17211.15	아일랜드	25645.97	아일랜드	31553.34	2.98%
17	스페인	16885.44	스페인	22891.36	리투아니아	29503.34	7.14%
18	포르투갈	15888.71	그리스	22091.92	체코	28520.09	4.46%
19	그리스	15714.62	포르투갈	21535.08	한국	28338.82	4.18%
20	슬로베니아	14349.69	슬로베니아	20509.02	슬로베니아	28334.27	3.46%
21	한국	12496.05	한국	19674.99	스페인	27556.83	2.48%
22	체코	11908.95	체코	19241.06	포르투갈	26713.48	2.63%
23	헝가리	9404.12	슬로바키아	18145.99	폴란드	25038.42	5.07%
24	폴란드	9316.59	리투아니아	16202.31	라트비아	22504.84	6.65%
25	슬로바키아	9057.59	폴란드	16010.88	헝가리	22478.52	4.45%
26	리투아니아	7427.71	헝가리	15216.62	슬로바키아	21765.20	4.48%
27	라트비아	6208.61	라트비아	13284.36	그리스	21476.60	1.57%

* (주) 1. 경상물가, 경상 PPP(Purchasing Power Parity)기준. 추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음
2. '총(gross)'의 의미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출처: OECD, OECD Data : Household disposable income)

* (자료) OECD, OECD Stat:National Accounts/National Accounts at a Glance/household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가계가처분소득은 수령한 순이자와 배당금, 지급한 세금과 사회공헌금 등을 고려한 가구의 소득으로 측정하며 가구의 소득에는 임금, 급여, 사업소득, 사회급여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통계연감: 가계처분가능소득(OECD))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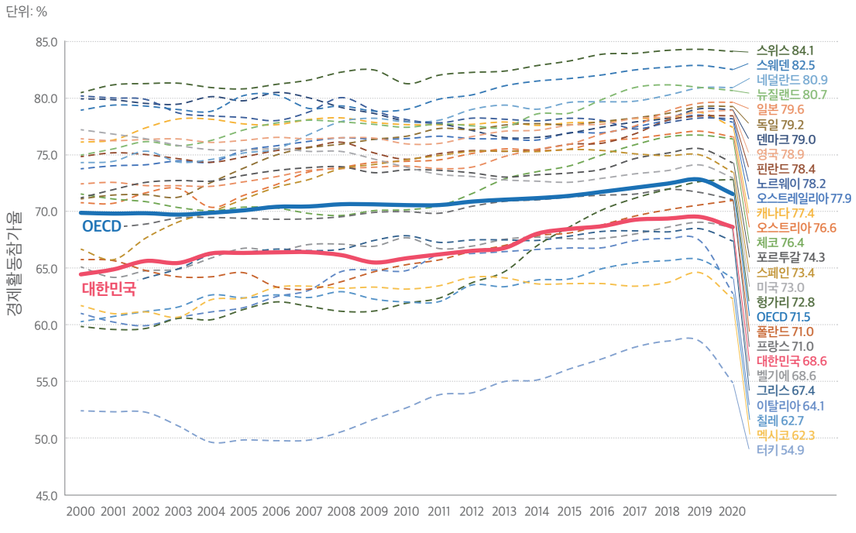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2000년-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OECD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 200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OECD 평균인 69.9%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7개국 중 15위를 차지함
-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1.5%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스위스 84.1%, 가장 낮은 지역은 터키 54.9%로 나타남
- 같은 해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함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 (주) 1.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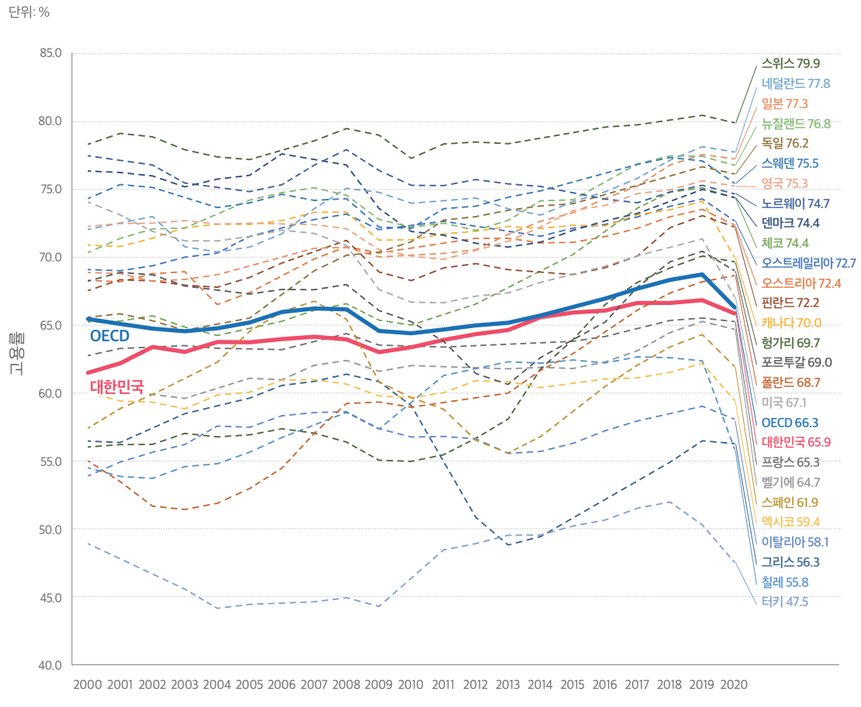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고용률)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OECD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OECD 국가별 고용률

- 2000년-2020년 기간 동안 한국의 고용률은 61.5%에서 65.9%로 4.4%p 증가하였으나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66.3%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고용률



* (주) 1. 고용률(%)=(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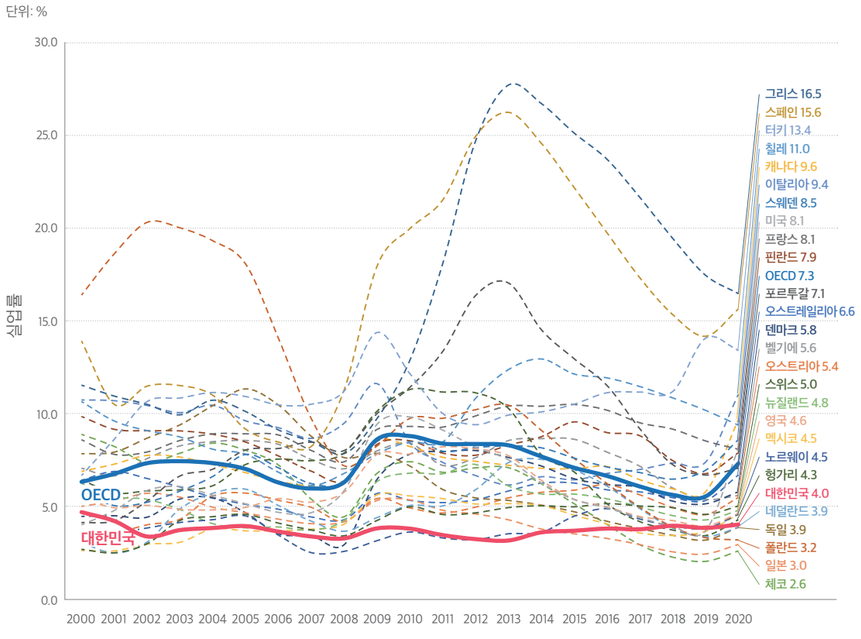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2000-2020년 실업률 변화)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9년 5.6%에서 2020년 7.3%로 증가함. 2020년 한국의 실업률은 4.0%로 OECD 평균보다 3.3%p 낮음

OECD 국가별 실업률

-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5.6%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0년 1.7%p증가한 7.3%를 기록함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그리스 16.5%, 가장 낮은 지역은 체코 2.6%로 나타남
- 같은 해 한국의 실업률은 4.0%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네덜란드 3.9%와 비슷한 수준임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실업률 변화



* (주) 1. 실업률(%)=(15~64세 실업자수÷15~64세 경제활동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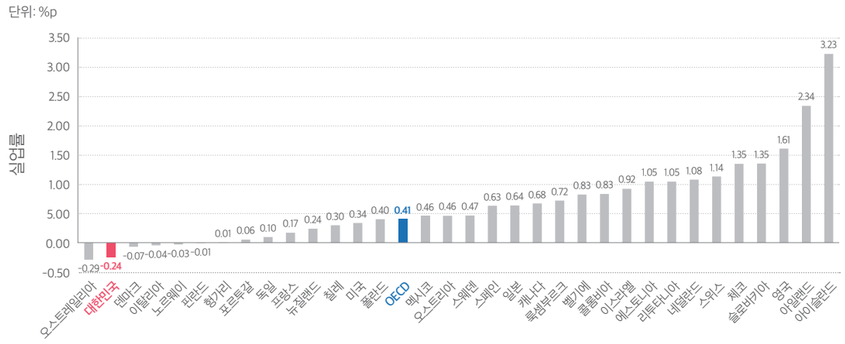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2022년 4분기 실업률 전망) 2022년 4분기 실업률 전망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감소할 전망임

OECD 국가별 실업률 변화 전망

- 2022년 4분기 실업률 전망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을 보임
- 반면,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0.24%p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OECD 국가별 2019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실업률 변화 전망



순위	국가	실업률 증감	순위	국가	실업률 증감	순위	국가	실업률 증감
1	아이슬란드	3.23	12	벨기에	0.83	23	뉴질랜드	0.24
2	아일랜드	2.34	13	룩셈부르크	0.72	24	프랑스	0.17
3	영국	1.61	14	캐나다	0.68	25	독일	0.10
4	슬로바키아	1.35	15	일본	0.64	26	포르투갈	0.06
5	체코	1.35	16	스페인	0.63	27	헝가리	0.01
6	스위스	1.14	17	스웨덴	0.47	28	핀란드	-0.01
7	네덜란드	1.08	18	오스트리아	0.46	29	노르웨이	-0.03
8	리투타니아	1.05	19	멕시코	0.46	30	이탈리아	-0.04
9	에스토니아	1.05	20	폴란드	0.40	31	덴마크	-0.07
10	이스라엘	0.92	21	미국	0.34	32	대한민국	-0.24
11	콜롬비아	0.83	22	칠레	0.30	33	오스트레일리아	-0.29
OECD 평균		0.41						

* (주) 2019년 4분기 대비 백분율 차이로 계산

* (자료) OECD. 2021. Employment Outlook 2021. fig.1.14. 참고

Ⅱ OECD 국가의 지역간 소득 및 고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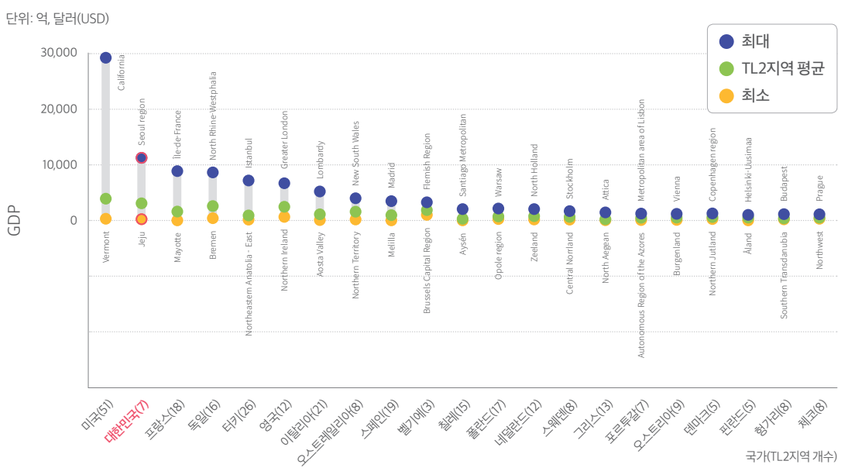
한국의 국내총생산 지역간 격차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지역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OECD 국가별 GDP 지역간 격차(TL2)

- GDP 지역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미국이 가장 크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수준임
- 한국에서 G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약 1조 달러),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약 200억 달러)임

2019년 OECD 국가별 GDP 지역간 격차(TL2, PPP 기준)



* (주) 1.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고정가격(2015년 기준)으로 표시한 다음 각 국가의 GDP를 공통 통화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변환한 데이터임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TL2지역 GDP 평균은 국가별 TL2지역 합계 GDP를 TL2지역 개수로 나눈 값으로 국가 평균과는 다름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Economy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OECD 회원국 지역은 행정조직을 반영하여 두 개의 지리적 레벨(TL, Territorial Levels)에 따라 분류되며 큰 지역을 나타내는 상위 지역수준 TL2, 작은 지역을 나타내는 하위 지역수준 TL3로 구분함. 한국의 TL2는 7개의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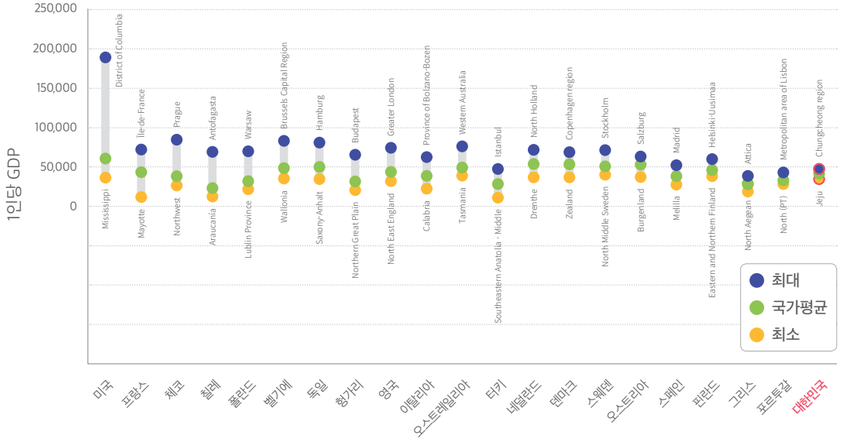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1인당 GDP)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지역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OECD 국가별 1인당 GDP 지역간 격차(TL2)

- 1인당 GDP 지역간 격차는 미국, 프랑스, 체코 순으로 높았고, 한국의 1인당 GDP 지역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권(약 4만 7천 달러),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약 3만 5천 달러)임

2019년 OECD 국가별 1인당 GDP 지역간 격차(TL2, PPP 기준)



* (주) 1.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고정가격(2015년 기준)으로 표시한 다음 각 국가의 GDP를 공통 통화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변환한 데이터임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Economy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2018년 한국의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TL2)간 격차는 2,695달러로 OECD 주요국 평균인 9,327달러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OECD 국가별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간 격차(TL2)

- OECD 주요국의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간 격차는 평균 9,327달러 수준임
- 한국의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2,695달러로 OECD 주요국 대비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음
  - 최대: 수도권(21,068달러), 최소: 경북권(18,373달러)

2018년 OECD 국가별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간 격차(TL2, PPP기준)

단위: 달러(USD)



* (주) 2015년 고정가격,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Economy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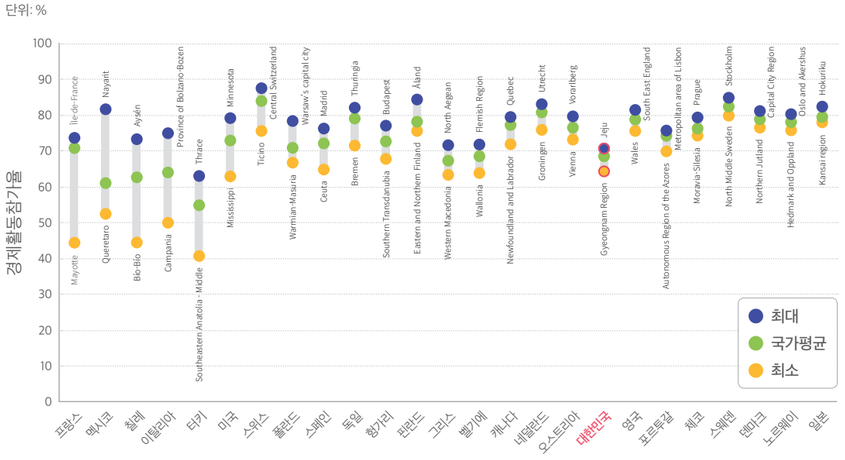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남. 한국은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간 격차가 작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0.8%),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권(64.4%)임

OECD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TL2)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임
- 같은 해 한국은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간 격차가 작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 70.8%로 제주가 가장 높고 64.4%로 경남권이 가장 낮았음
- OECD 국가의 TL2지역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스위스의 Central Switzerland(87.7%)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터키의 Southeastern Anatolia - Middle(40.7%)로 나타남

2020년 OECD 25개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간 격차(TL2)

단위: %



* (주) 1.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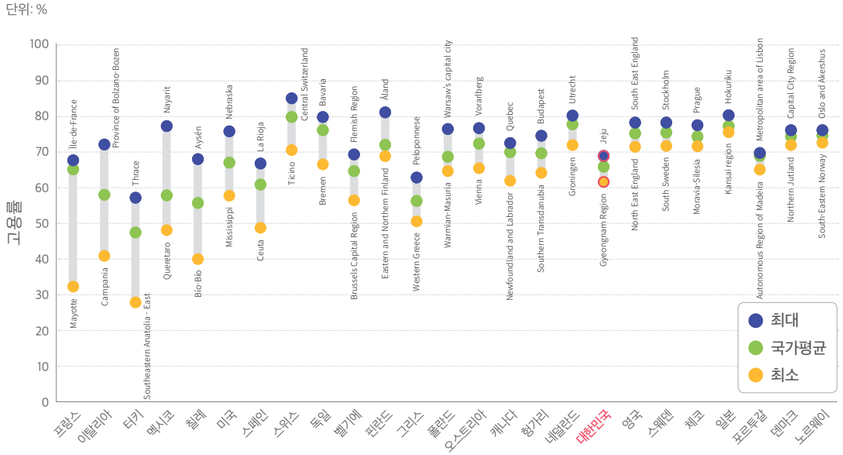
한국의 고용률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TL2지역간 고용률 격차)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TL2지역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가장 작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나타남. 한국은 OECD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간 격차가 작음

OECD 국가별 고용률 지역간 격차(TL2)

- 고용률의 지역간 격차는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국가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지역간 격차가 7.3%p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수준임
- 한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9.0%),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권(61.7%)임

2020년 OECD 국가별 고용률 지역간 격차(TL2)



* (주) 1. 고용률(%)=(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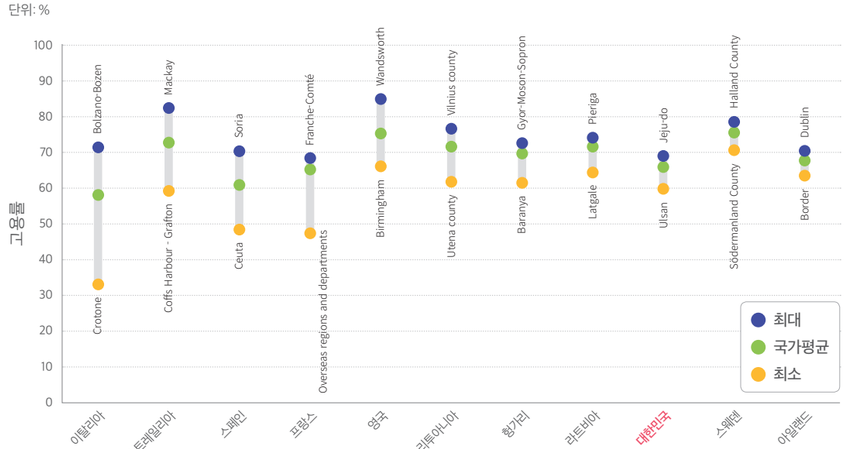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TL3 지역간 고용률 격차) 2020년 OECD 국가의 TL3지역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아일랜드임. 한국은 11개 국가 중 세 번째로 격차가 작음

OECD 국가별 고용률 지역간 격차(TL3)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고용률 TL3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아일랜드임
- 한국은 11개 국가 중 세 번째로 TL3지역간 격차가 작았으며, 고용률 69%로 제주도가 가장 높고 59.8%로 울산이 가장 낮았음
- OECD 국가의 TL3지역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국의 Wandsworth(84.9%)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이탈리아의 Crotone(33.1%)로 나타남

2020년 OECD 국가별 고용률 지역간 격차(TL3)



* (주) 1. 고용률(%)=(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2020년 TL3자료 구득이 가능한 OECD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OECD 회원국 지역은 행정조직을 반영하여 두 개의 지리적 레벨(TL, Territorial Levels)에 따라 분류되며 큰 지역을 나타내는 상위 지역수준 TL2, 작은 지역을 나타내는 하위 지역수준 TL3로 구분함. 한국의 TL3는 17개의 시·도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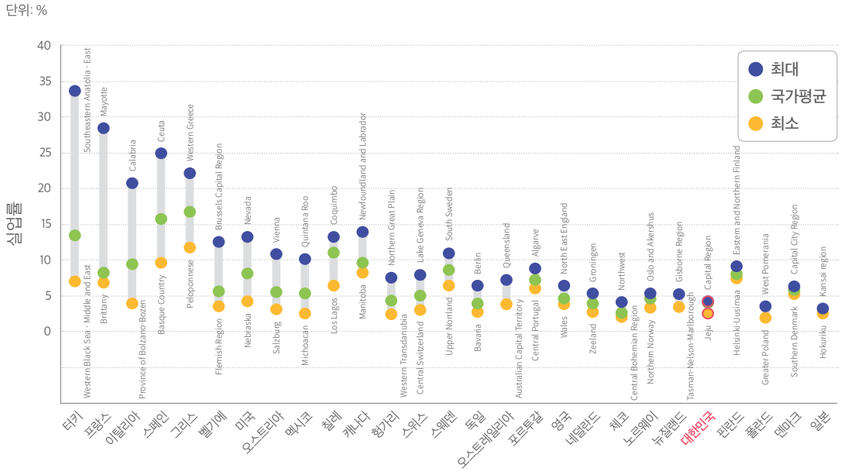
한국의 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TL2 지역의 실업률 격차)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TL2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남. 한국은 27개 국가 중 일본,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5번째로 지역간 격차가 작음

OECD 국가별 실업률 지역간 격차(TL2)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실업률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임
- 같은 해 한국은 27개 국가 중 5번째로 지역간 격차가 작았으며, 실업률 4.2%로 수도권이 가장 높고 2.5%로 제주가 가장 낮았음
- OECD 국가의 TL2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터키의 Southeastern Anatolia - East(33.6%)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폴란드의 Greater Poland(1.9%)로 나타남

2020년 OECD 국가별 실업률 지역간 격차(TL2)



* (주) 1. 실업률(%)=(15~64세 실업자수÷15~64세 경제활동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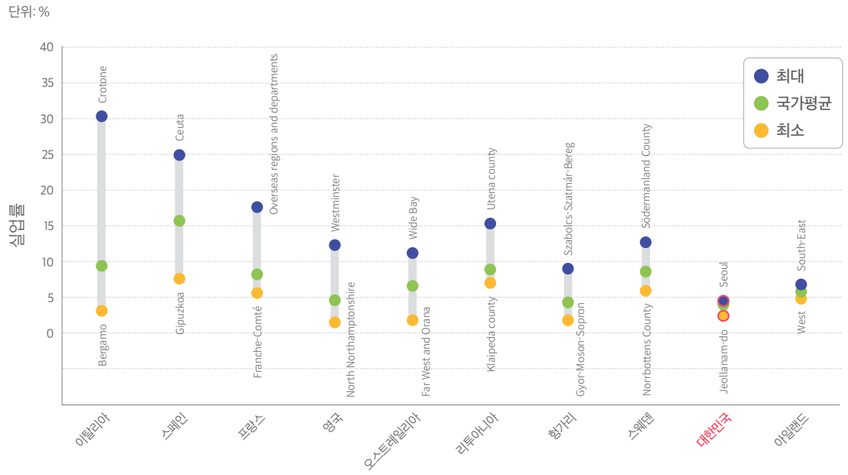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TL3 지역의 실업률 격차) 2020년 OECD 국가의 TL3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아일랜드임. 한국은 10개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작음

OECD 국가별 실업률 지역간 격차(TL3)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실업률 TL3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지역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아일랜드임
- 한국은 1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TL3지역간 격차가 작았으며, 실업률 4.5%로 서울이 가장 높고 2.4%로 전라남도가 가장 낮았음
- OECD 국가의 TL3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탈리아의 Crotone(30.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영국의 North Northamptonshire(1.5%)로 나타남

2020년 OECD 국가별 실업률 지역간 격차(TL3)



* (주) 1. 실업률(%)=(15~64세 실업자수÷15~64세 경제활동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2020년 TL3자료 구득이 가능한 OECD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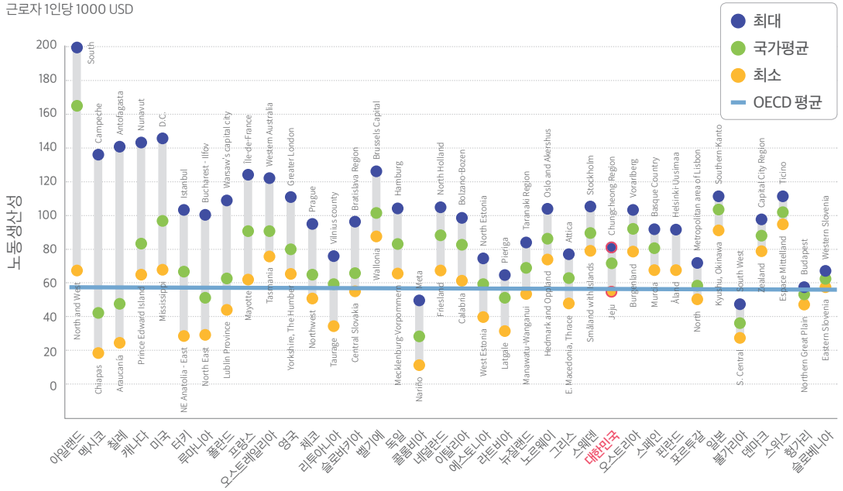
한국의 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

2018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총 부가가치)은 71,630달러로 OECD 평균 57,740달러보다 높으며 지역간 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편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TL2)

- 노동생산성의 성장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표로, 근로자 1인당 총부가가치(GVA) 측면에서 측정했을 때 국가 간·국가 내에서 격차를 보임
- 노동생산성(국가평균 기준)은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벨기에 순으로 높았고 한국은 OECD 34개국 중 19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의 국가 내 격차는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순으로 크고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5위로 작게 나타남
- 한국은 충청권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OECD 34개국 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TL2)



* (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콜롬비아: 2017년 기준 ;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2016년 기준 ; 터키 2015년 기준을 제외한 국가들은 2018년 기준 데이터임
* (자료) OECD. 2020.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 p.57. fig.2.11. 참고

용어설명 Tip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는 생산량을 측정하는 생산성 지표로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을 포함함.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임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Ⅲ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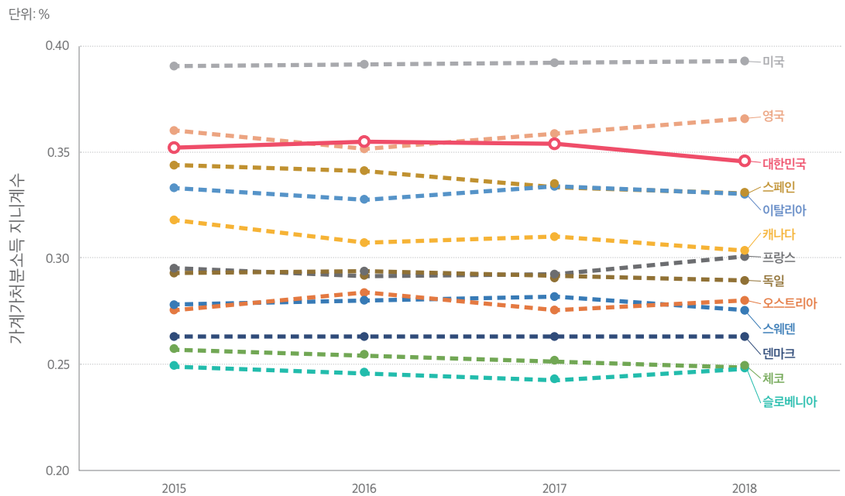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

2015년-2018년 기간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은 OECD 주요국 중 높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

가계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345-0.355로 나타나 OECD 주요국 중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6년 0.355로 지니계수가 최고치에 이르렀으나 2018년 0.345로 최근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2018년 OECD 주요국의 가계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



* (자료) OECD, OECD Data : Income inequality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0=완전평등
1=완전 불평등

(출처: OECD, OECD Data : Income 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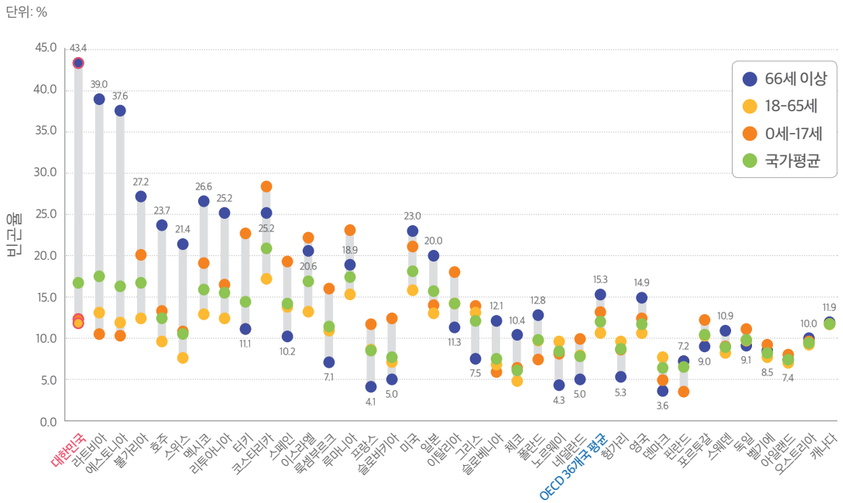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과 연령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최상위

2018년 대한민국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3.4%로 OECD 36개국 중 최상위를 기록함

OECD 국가별 연령대별 빈곤율 및 격차

- 2018년 한국 전체인구에 대한 빈곤율은 16.7%로 OECD 36개국 평균 1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17세 인구의 빈곤율은 12.3%로 OECD 36개국 평균 13.2% 대비 다소 낮은 편임
- 18-65세 인구의 빈곤율은 11.8%로 OECD 36개국 평균 10.6% 대비 다소 높은 편임
- 한편,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3.4%로 OECD 36개국 평균 15.3%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노령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OECD 36개국의 0-17세, 18-65세,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



* (자료) OECD, OECD Data : Poverty rate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용어설명 Tip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전체인구의 중위가구 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갖는 인구의 비율로 간주됨 (출처: OECD, OECD Data : Pover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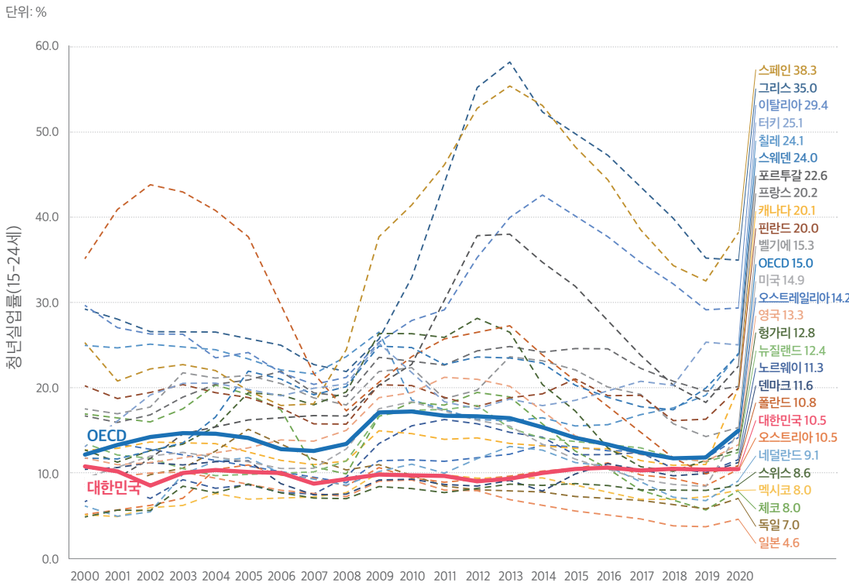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2000년-2020년 기간 동안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큰 변동없이 OECD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

- 2000년-2020년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최저 8.5%에서 최고 10.8% 수준이었고, 최근 5년 동안은 청년실업률 10%수준을 유지함
- 2000년 대비 2020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8%에서 10.5%로 0.3%p 감소함
- 지난 20년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15-24세)



* (주) 1. 청년실업률(%)=(15~24세 실업자÷15~24세 경제활동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코로나19의 위기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함

OECD 국가별 코로나19 이후의 청년실업률

-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ECD 청년실업률(가중평균)은 2020년 4월에 가장 높았고(19.0%), 최근에는(2021년 5월) 1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20년 5월 11.8%로 가장 높았고, 최근에는(2021년 5월) 9.2%로 감소하여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의 청년실업률(9.7%)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증가하였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실업률의 증가폭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15-24세)

단위: %

* (주) 가장 최근 데이터는 미국: 2021년 6월 기준 ; 벨기에,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2021년 4월 기준 ; 슬로베니아, 영국: 2021년 3월 기준 ; 노르웨이: 2020년 11월 기준 ; 그 외 국가는 2021년 5월 기준을 사용함

* (자료) OECD. 2021. Employment Outlook 2021. fig.1.20. 참고

한국의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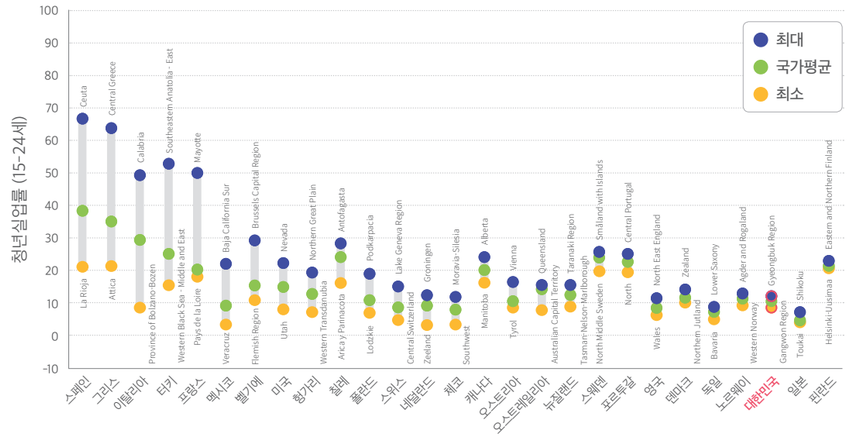
2020년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OECD 27개국 중 3번째로 작음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TL2)

-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3.5%p로 핀란드, 일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권(12.0%),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권(8.5%)임

2020년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 지역간 격차(15-24세, TL2)

단위: %



* (주) 1. 청년실업률(%)=(15~24세 실업자÷15~24세 경제활동인구)×100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지역간 성별 격차는 비교적 높은 수준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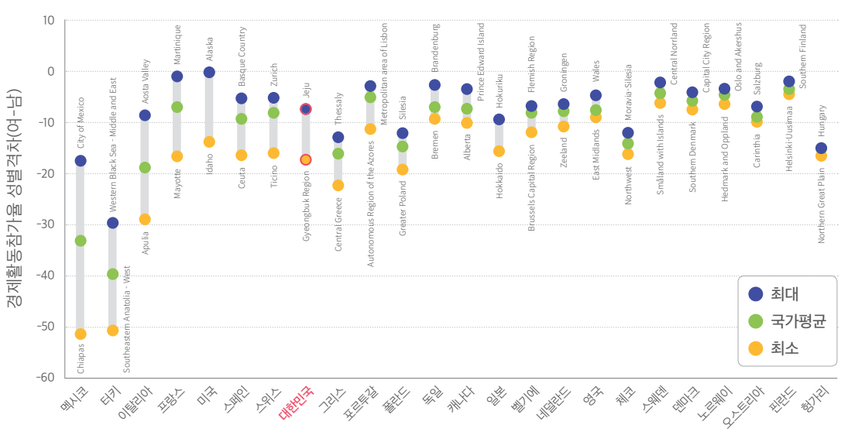
OECD 국가별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TL2)

- 2020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OECD 24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7.3%p로 경북권의 성별격차가 가장 크고 -7.4%p로 제주의 성별 격차가 가장 작았음
- 지역간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가장 작은 국가는 헝가리이며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멕시코의 Chiapas(-51.3%p), 가장 작은 지역은 미국의 Alaska(-0.2%p)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의 마이너스 값은 남성 참여율이 여성 참여율보다 높음을 의미함

2020년 OECD 국가별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여-남, TL2)

단위: %p



* (주) 1.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p) = 15~64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5~64세 남성경제활동참가율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미국, 대한민국, 일본 국가평균은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생략함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지역간 고용률 성별 격차)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10번째로 지역간 고용률 성별격차가 큼

OECD 국가별 지역간 고용률 성별 격차(T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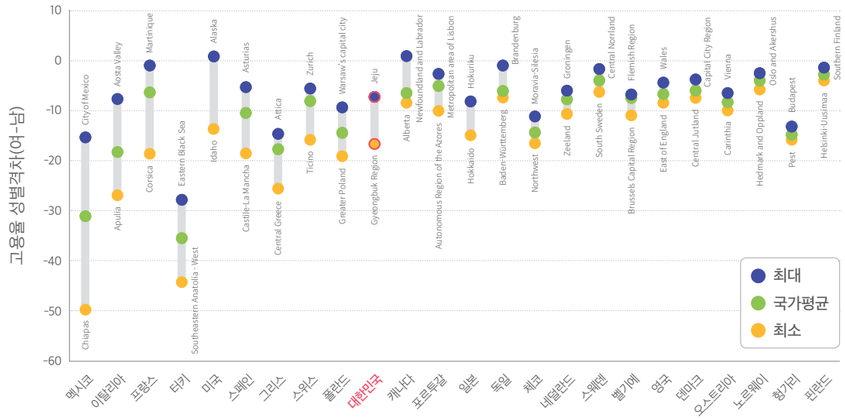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고용률은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고용률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권(-16.6%p),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7.2%p)임

* 고용률 성별 격차의 마이너스 값은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높음을 의미함

- 지역간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가장 작은 나라는 핀란드로 나타남

2020년 OECD 국가별 지역간 고용률 성별 격차(여-남, TL2)

단위: %p



* (주) 1. 고용률 성별 격차(%p) = 15~64세 여성고용률 - 15~64세 남성고용률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미국, 대한민국, 일본 국가평균은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생략함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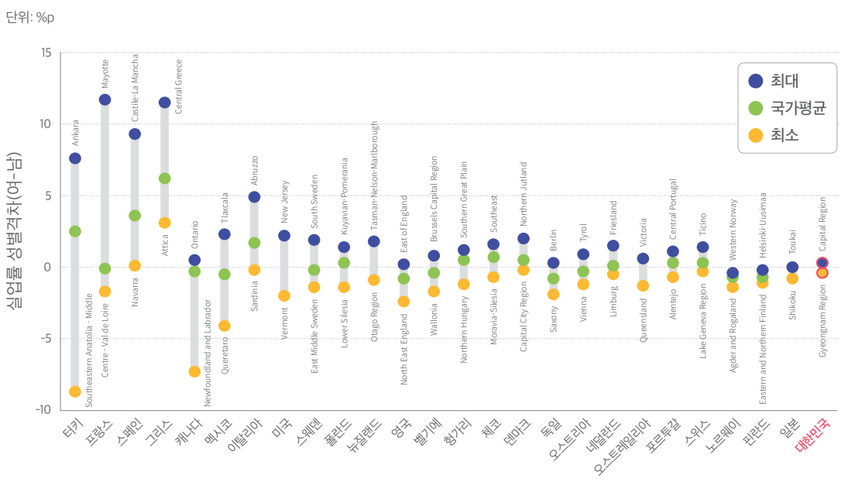
한국의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2020년 기준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24개 국가 중 터키가 가장 크고, 한국이 가장 작음

OECD 국가별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TL2)

-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 가장 작은 국가는 한국이며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프랑스의 Mayotte(11.7%p), 가장 작은 지역은 스페인의 Navarra(0.1%p)로 나타남
- 한국은 OECD 26개 국가 중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4%p로 경남권의 성별격차가 가장 크고 0.3%p로 수도권의 성별 격차가 가장 작았음
  * 실업률 성별 격차의 마이너스 값은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플러스 값은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높음을 의미

2020년 OECD 국가별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여-남, TL2)



* (주) 1. 실업률 성별 격차(%p) = 15~64세 여성실업률 - 15~64세 남성실업률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3. 미국, 대한민국, 일본 국가평균은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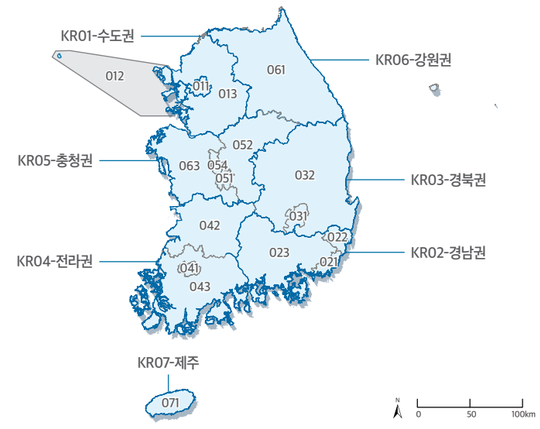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Stat:Regional Statistics/Regional Labour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부록

1. TL2와 TL3 지역의 의미

- OECD 회원국 지역은 행정조직을 반영하여 두 개의 지리적 레벨(TL, Territorial Levels)에 따라 분류되며 큰 지역을 나타내는 상위 지역수준 TL2, 작은 지역을 나타내는 하위 지역수준 TL3로 구분함
- 한국의 TL2는 7개의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 TL3는 17개의 시·도로 구분됨

OECD 통계 데이터의 지리적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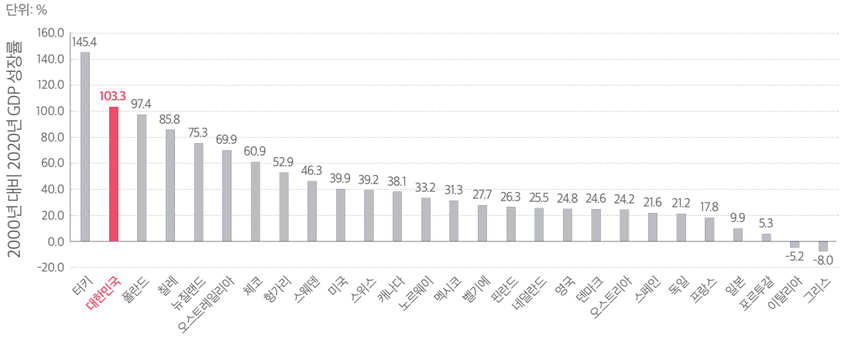
OECD 통계 데이터의 지리적 레벨 세분류

지리적 레벨2 (TL2)		지리적 레벨3 (TL3)	
KR01	수도권	KR011	서울특별시
		KR012	인천광역시
		KR013	경기도
KR02	경남권	KR021	부산광역시
		KR022	울산광역시
		KR023	경상남도
KR03	경북권	KR031	대구광역시
		KR032	경상북도
KR04	전라권	KR041	광주광역시
		KR042	전라북도
		KR043	전라남도
KR05	충청권	KR051	대전광역시
		KR052	충청북도
		KR053	충청남도
		KR054	세종특별자치시
KR06	강원권	KR061	강원도
KR07	제주	KR071	제주도

* (자료) OECD. 2020. Territorial grid. p.31 Territorial Level2 and 3 참고

2.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GDP 성장(PPP기준)

단위: %



* (주) 1.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고정가격(2015년 기준)으로 표시한 다음 각 국가의 GDP를 공통 통화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변환한 데이터임
2. 추정값, 잠정값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의 방법론 차이가 있음

* (자료) OECD, OECD Stat:National Account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3.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PPP기준)

단위: 달러(USD)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1인당 GDP	국가	1인당 GDP	국가	1인당 GDP
OECD	34,289		37,844		40,917	
1	스위스	57,095	스위스	63,774	스위스	66,674
2	노르웨이	54,752	노르웨이	58,806	노르웨이	60,911
3	미국	48,705	미국	52,887	미국	58,298
4	덴마크	45,363	네덜란드	49,396	덴마크	51,772
5	네덜란드	45,017	오스트리아	48,908	네덜란드	51,572
6	오스트리아	43,826	덴마크	47,134	스웨덴	49,097
7	독일	40,320	스웨덴	46,078	오스트리아	48,908
8	벨기에	40,193	벨기에	44,813	독일	47,855
9	이탈리아	39,472	독일	44,552	오스트레일리아	47,731
10	스웨덴	39,169	오스트레일리아	44,479	벨기에	45,647
11	캐나다	38,858	핀란드	43,254	핀란드	44,451
12	오스트레일리아	37,933	캐나다	42,170	캐나다	43,336
13	핀란드	37,615	영국	40,160	대한민국	41,370
14	프랑스	37,450	프랑스	39,731	일본	40,768
15	영국	37,081	이탈리아	38,760	영국	40,607
16	일본	36,773	일본	38,546	프랑스	39,629
17	스페인	32,468	스페인	34,860	뉴질랜드	38,842
18	뉴질랜드	29,273	뉴질랜드	34,016	체코	36,089
19	포르투갈	28,960	대한민국	33,574	이탈리아	35,823
20	그리스	27,588	그리스	31,905	스페인	33,821
21	체코	23,370	체코	31,255	폴란드	30,938
22	대한민국	22,416	포르투갈	30,308	포르투갈	30,464
23	헝가리	18,904	헝가리	23,841	헝가리	30,279
24	멕시코	16,531	폴란드	22,903	터키	28,491
25	폴란드	15,712	칠레	19,712	그리스	25,593
26	터키	15,066	터키	19,648	칠레	21,299
27	칠레	14,471	멕시코	16,894	멕시코	17,246

* (자료) OECD, OECD Stat:National Account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4.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OECD	69.9		70.6		71.5	
1	오스트레일리아	80.5	오스트레일리아	81.3	오스트레일리아	84.1
2	오스트리아	80.2	오스트리아	79.0	오스트리아	82.5
3	벨기에	79.9	벨기에	78.1	벨기에	80.9
4	캐나다	79.0	캐나다	78.0	캐나다	80.7
5	칠레	77.2	칠레	77.9	칠레	79.6
6	체코	76.4	체코	77.7	체코	79.2
7	덴마크	76.2	덴마크	77.4	덴마크	79.0
8	핀란드	75.0	핀란드	76.6	핀란드	78.9
9	프랑스	74.9	프랑스	76.4	프랑스	78.4
10	독일	74.3	독일	76.0	독일	78.2
11	그리스	73.8	그리스	74.6	그리스	77.9
12	헝가리	72.5	헝가리	74.6	헝가리	77.4
13	이탈리아	71.6	이탈리아	74.4	이탈리아	76.6
14	일본	71.2	일본	74.0	일본	76.4
15	대한민국	71.1	대한민국	73.9	대한민국	74.3
16	멕시코	70.8	멕시코	73.7	멕시코	73.4
17	네덜란드	68.6	네덜란드	70.2	네덜란드	73.0
18	뉴질랜드	66.7	뉴질랜드	70.0	뉴질랜드	72.8
19	노르웨이	65.8	노르웨이	67.8	노르웨이	71.0
20	폴란드	65.1	폴란드	67.7	폴란드	71.0
21	포르투갈	64.5	포르투갈	65.9	포르투갈	68.6
22	스페인	63.8	스페인	65.3	스페인	68.6
23	스웨덴	61.7	스웨덴	64.8	스웨덴	67.4
24	스위스	61.0	스위스	63.1	스위스	64.1
25	터키	60.3	터키	62.0	터키	62.7
26	영국	59.9	영국	61.9	영국	62.3
27	미국	52.4	미국	52.7	미국	54.9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5.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고용률

단위: %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고용률	국가	고용률	국가	고용률
OECD	65.5		64.4		66.3	
1	스위스	78.3	스위스	77.3	스위스	79.9
2	노르웨이	77.5	노르웨이	75.3	네덜란드	77.8
3	덴마크	76.4	네덜란드	74.0	일본	77.3
4	스웨덴	74.3	오스트레일리아	72.4	뉴질랜드	76.8
5	미국	74.1	뉴질랜드	72.2	독일	76.2
6	영국	72.3	스웨덴	72.1	스웨덴	75.5
7	네덜란드	72.1	덴마크	71.9	영국	75.3
8	캐나다	70.9	캐나다	71.3	노르웨이	74.7
9	뉴질랜드	70.3	독일	71.2	덴마크	74.4
10	오스트레일리아	69.1	오스트리아	70.8	체코	74.4
11	일본	68.9	일본	70.1	오스트레일리아	72.7
12	오스트리아	68.3	영국	70.1	오스트리아	72.4
13	포르투갈	68.3	핀란드	68.3	핀란드	72.2
14	핀란드	67.5	미국	66.7	캐나다	70.0
15	독일	65.6	포르투갈	65.3	헝가리	69.7
16	체코	65.2	체코	65.0	포르투갈	69.0
17	프랑스	62.7	프랑스	63.5	폴란드	68.7
18	대한민국	61.5	대한민국	63.4	미국	67.1
19	벨기에	60.5	벨기에	62.0	대한민국	65.9
20	멕시코	60.1	스페인	59.7	프랑스	65.3
21	스페인	57.4	멕시코	59.7	벨기에	64.7
22	그리스	56.5	칠레	59.3	스페인	61.9
23	헝가리	56.0	그리스	59.1	멕시코	59.4
24	폴란드	55.0	폴란드	58.9	이탈리아	58.1
25	칠레	54.5	이탈리아	56.8	그리스	56.3
26	이탈리아	53.9	헝가리	55.0	칠레	55.8
27	터키	48.9	터키	46.3	터키	47.5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6.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실업률

단위: %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실업률	국가	실업률	국가	실업률
OECD	6.3		8.7		7.3	
1	폴란드	16.4	스페인	20.0	그리스	16.5
2	스페인	13.9	그리스	12.9	스페인	15.6
3	그리스	11.6	터키	12.1	터키	13.4
4	칠레	10.7	포르투갈	11.4	칠레	11.0
5	이탈리아	10.6	헝가리	11.3	캐나다	9.6
6	핀란드	9.8	미국	9.8	이탈리아	9.4
7	체코	8.8	폴란드	9.7	스웨덴	8.5
8	프랑스	8.6	프랑스	9.3	미국	8.1
9	독일	7.8	스웨덴	8.7	프랑스	8.1
10	벨기에	7.0	핀란드	8.5	핀란드	7.9
11	캐나다	6.9	이탈리아	8.5	포르투갈	7.1
12	터키	6.7	칠레	8.4	오스트레일리아	6.6
13	헝가리	6.4	벨기에	8.4	덴마크	5.8
14	오스트레일리아	6.4	캐나다	8.2	벨기에	5.6
15	뉴질랜드	6.2	영국	7.8	오스트리아	5.4
16	스웨덴	5.9	덴마크	7.8	스위스	5.0
17	영국	5.4	체코	7.4	뉴질랜드	4.8
18	일본	5.0	독일	7.2	영국	4.6
19	대한민국	4.6	뉴질랜드	6.7	멕시코	4.5
20	덴마크	4.5	멕시코	5.5	노르웨이	4.5
21	포르투갈	4.2	오스트레일리아	5.3	헝가리	4.3
22	미국	4.0	일본	5.3	대한민국	4.0
23	오스트리아	3.5	네덜란드	5.0	독일	3.9
24	노르웨이	3.3	스위스	4.9	네덜란드	3.9
25	네덜란드	3.1	오스트리아	4.9	폴란드	3.2
26	스위스	2.7	대한민국	3.8	일본	3.0
27	멕시코	2.6	노르웨이	3.6	체코	2.6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7. 2000년-2020년 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15~24세)

단위: %

순위	2000년		2010년		2020년	
	국가	청년실업률	국가	청년실업률	국가	청년실업률
OECD	12.1		17.3		15.0	
1	폴란드	35.2	스페인	41.5	스페인	38.3
2	이탈리아	29.7	그리스	33.0	그리스	35.0
3	그리스	29.2	이탈리아	27.9	이탈리아	29.4
4	스페인	25.3	헝가리	26.4	터키	25.1
5	칠레	25.0	스웨덴	24.8	칠레	24.1
6	핀란드	20.3	폴란드	23.7	스웨덴	24.0
7	벨기에	17.5	프랑스	23.3	포르투갈	22.6
8	체코	17.0	포르투갈	22.8	프랑스	20.2
9	프랑스	16.7	벨기에	22.4	캐나다	20.1
10	뉴질랜드	13.5	터키	21.7	핀란드	20.0
11	터키	13.1	핀란드	20.3	벨기에	15.3
12	헝가리	12.7	영국	19.5	미국	14.9
13	캐나다	12.7	칠레	18.6	오스트레일리아	14.2
14	오스트레일리아	12.1	미국	18.4	영국	13.3
15	영국	11.7	체코	18.3	헝가리	12.8
16	스웨덴	11.7	뉴질랜드	17.4	뉴질랜드	12.4
17	대한민국	10.8	덴마크	15.6	덴마크	11.6
18	노르웨이	10.5	캐나다	14.6	노르웨이	11.3
19	미국	9.3	오스트레일리아	11.6	폴란드	10.8
20	일본	9.2	네덜란드	11.1	대한민국	10.5
21	포르투갈	8.6	멕시코	9.8	오스트리아	10.5
22	독일	8.4	대한민국	9.7	네덜란드	9.1
23	덴마크	6.6	독일	9.7	스위스	8.6
24	네덜란드	6.1	오스트리아	9.5	멕시코	8.0
25	오스트리아	5.1	노르웨이	9.3	체코	8.0
26	멕시코	5.1	일본	9.2	독일	7.0
27	스위스	4.8	스위스	8.2	일본	4.6

* (자료) OECD, OECD Stat:Labour Force Statistics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2021.12.1.기준)

발 행 일 2021. 12. 31.
기 획 국토연구원
발 행 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발 행 인 강현수
연 구 진 김태환, 김은란, 신휴석, 박미래, 이혜진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www.krihs.re.kr
044) 960-0114 / FAX 044) 211-4760
편집제작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SN 2733-5968